소년단

1957. 5

유화 **원산 총파업** 오 택 경

이 유화는 1929년에 일어 났던 원산 총파업에 대한 것이다.

조선 로동자들을 억압 착취하던 일제와 그와 한편인 영국인 자본가 등 외국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원산 로동자들은 1월 14일 총 파업을 일으켰다.

《총 파업은 3개월을 넘었다. 이 기간에 일제의 총검은 이미 간부와 많은 로동자를 감옥으로 몰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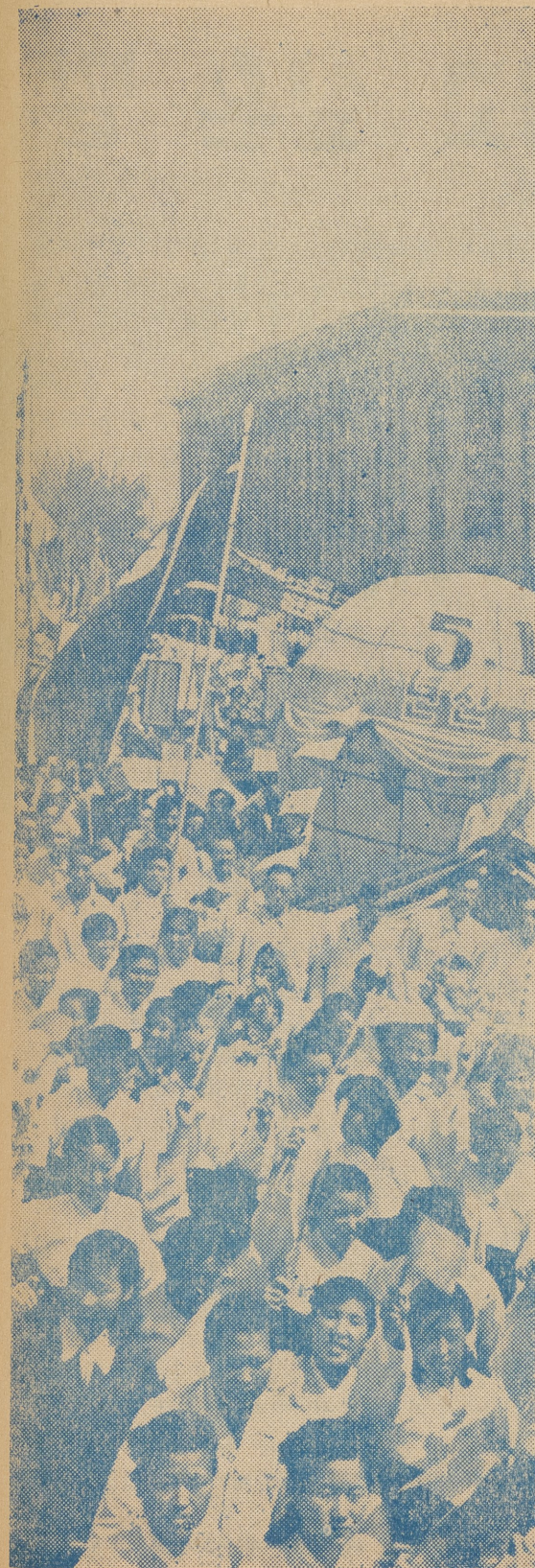
4월이 왔다. 반동파들은 일제의 추검 밑에서… 반동 단체를 만들어 냈다. 로동련합회 청년부에 속한 청년 로동자들은 반동 분자 습격대를 조직했다.

4월 그믐날(5• 1절 전날)바로 이날 새벽 이 반동 단체를 습격했다.…반동 한 놈은 즉사했다.

총 파업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웠다. 로동 계급의 힘은 자랑으로, 혁명적 기세로 높았다. ……》(총 파업 참가자 리 종민 의 수기 중에서)

◇

앞표지: 응! 알만 해……………………김 창 규 촬영

뒤표지: 맹수 마찰 ……………………리 건 영 그림

소년단 1957년 5호 내용

이 야 기

하고 싶은 말…로력영웅 박 봉조…(2)
물'고기는 식량과 같다……………(4)
부르자 싸움의 노래를…남궁 만…(7)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

행군을 앞두고…………박 정렬…(10)
학교에서 처럼…………최 옥선…(16)

문 예

번역 동화 수탉은 왜 새벽에 우는가…… 르•꾸쉬니로브…(13)
옛'이야기 추향로 ……김 소향…(25)
그림 이야기 흑인 소년《눈'송이》 웨•루비모와 원작……………(35)

파철의 려행……………리 종근…(29)
구데기와 너삼 뿌리……………(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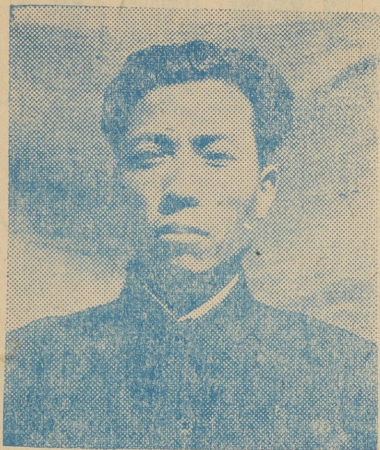
◇우리 학교대의 자랑◇

꼬마 선전원 ……………………(3)
마을을 깨끗이 하는 소년단원들 (9)
아름다운 일……………………(40)

공작과 오락

놀음'감 만들기……………………(12)
계산 놀이……………………………(28)

제6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준비……………………(20)
일본에 있는 조선인 소중 학교 아동들의 작품집에서………(32)

우리들의 그림 페-지 ……………(22)

하고 싶은 말

흥남 비료 공장 류산 직장 기계 수리공
로력 영웅 박 봉조

얼마 전에 나는 《소년단》 편집부로부터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을 맞이하면서 공화국의 로동자의 한사람으로 또는 로력 영웅의 한사람으로서 소년단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생각 끝에 나는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무들과도 이야기해 보았고 공장 민청 위원장 동무와도 무엇에 대하여 쓰는 것이 좋겠는가고 의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웅 동무가 걸어 온 길을 쓰면 소년단원들은 좋아 할겝니다》.

하기에 나는 모처럼 받은 부탁이고 해서 거기에 대하여 간단히 쓰기로 하였습니다.

❋ ❋

머지 않아 맞게 될 5•1절! 이 명절을 맞는 우리 도시와 마을, 공장과 광산, 어촌들에는 행복을 노래하는 기쁨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날 그 어데에서나 로동자, 농민들을 선두로 한 전체 인민들은 3개년 계획을 넘쳐 한 기세를 자랑할 것이며 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계획을 보다 넘쳐하기 위한 증산과 절약 투쟁의 자랑찬 첫 열매를 시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로동자 농민들이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된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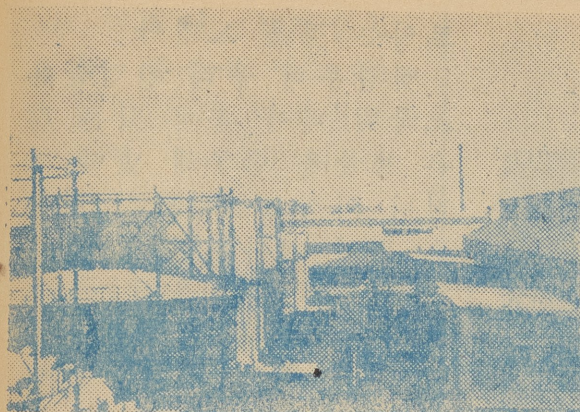
그러나 해방전의 우리는 이럴 수 없었습니다. 일제놈들의 착취 밑에서 10~12시간씩 일하면서도 굶주림과 헐벗음 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나온 수많은 애국자들은 10월 혁명의 승리에 고무되여 피를 흘리면서 오늘과 같은 행복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아직도 자본가들이 인민들을 착취하는 많은 나라들의 근로자들은 우리와 같은 행복을 찾기 위하여 5•1절을 놈들을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때 우리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공장의 주인이 된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동무들은 나에게 어떻게 로력 영웅이 될 수 있었는가고 물을 것입니다. 해방전까지만 해도 천대와 멸시를 받아 오던 보통 로동자인 내가 이 행복을 모르고서야 어찌 로력 영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땀 흘려 일할수록 성수가 났습니다. 해방전처럼 일제나 자본가의 배를 불려 주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며 날마다 꽃피는 우리 생활에서 일한 보람을 맛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공장을 폭격할 때 나는 우리 조국과 우리의 피땀으로 이룩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마치를 총으로 바꿔 쥐고 전선에 달려 갔던 것입니다.

땀이 스민 공장과 정든 사택 거리에 원쑤의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마치 내 가슴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전과 함께 다시 공장에 돌아 온 나는 원쑤를 무찌르던 그 힘을 사랑하는 공장의 복구 건설에 기울였습니다. 나의 기술도 쟁쟁 늘어 오늘은 8급공으로 자라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일하면 할수록 우리의 행복이 커가는 기쁨은 우리들이 맡은 계획을 훌륭히 넘쳐 할 수 있게끔 새 힘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3개년 계획 기간에도 나는 맡은 계획을 203%로 넘쳐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무기능공을 도와 6급~7급공으로 양성해 냈으며 흥남 지구 주민들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나쁜 까스를 막기 위하여 낡은 기계 설비를 고쳐 내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우리 공장의 낡은 기계 설비를 완전히 고쳐서 무해 직장으로 만들 것을 결심하고 꾸준히 기술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설비 좋은 공장에서 더욱 성수나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부지런히 일하면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낼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우리들의 뒤를 이을 소년단원 동무들이 더 좋은 학교에서 더 잘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 동무들! 장차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될 동무들의 앞길은 무한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뜻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꾸준히 힘써 나가야 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5•1절을 증산과 절약으로 맞듯이 동무들도 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그리고 모두다 열심히 배우며 부지런히 일할 줄 아는 소년단원이 되여 주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로동으로써 꽃피며 우리의 로동은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발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빨리 가져 올 것입니다.

사진 : 흥남 비료 공장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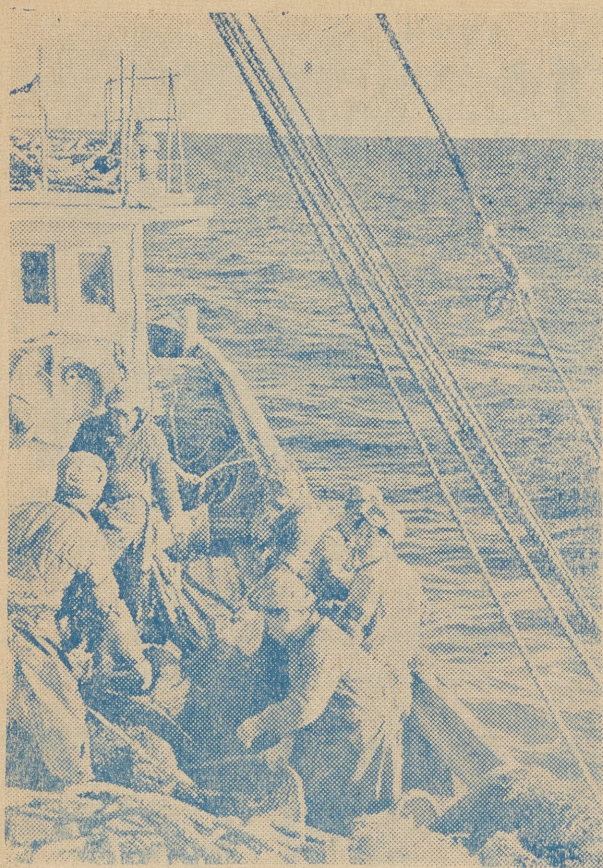
꼬마 선전원

새벽 안개도 가시기 전 이른 아침입니다. 원산시 중청 일동 마을 소년단원들은 벌써 떼를 지여 마을 청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사는 마을을 아침마다 이렇게 깨끗이 청소합니다. 저녁에는 자기 가정에서 집과 거리를 깨끗이 거두어야 나쁜 전염병이 달려 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 드리군 합니다.

이들은 원산시 제6 인민 학교 2분단 동무들입니다.

모두 《꼬마 선전원》으로서 위생 선전에 모범이라고 칭찬 받고 있습니다.

분주소 아저씨들의 말을 들으면 이 소년단원들의 기특한 행동에 감탄하여 이 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매일 떨쳐나서 청소하여 이 거리가 가장 깨끗하다고 합니다.

물' 고기는 식량과 같다

바다!

우리 나라의 삼면은 바다다. 그 넓은 바다 속에는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 것인가?

가 없이 트인 바다'가에 설때나 지도 앞에서 조국의 바다를 바라 볼 때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한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가슴도 바다처럼 넓게 트이는 것을 느낀다.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은 조국의 바다 속에 있는 많은 보물을 탐구해 냈다. 그러나 아직도 바다의 비밀은 많다. 바다의 비밀을 밝히면 밝힐수록 우리는 그 보물을 더 많이 리용할 수 있다. 조국의 바다는 이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끈다.

우리 조국의 바다는 수산물이 풍부한 것으로 세계에 이름이 높다. 우리 조국의 바다에는 섬들이 많고 굴곡이 심하여 해안선이 긴데다가 바다 밑의 지형, 바다의 깊이, 수온과 해류가 세바다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종 어류와 바다의 동, 식물이 많이 살며 고기떼가 많이 밀려 온다. 특히 동해 일대는 한류와 난류가 사철 엇바뀌여 흐르는 바다이기 때문에 수산물이 더 많으며 세계에 이름 높은 어장의 하나다. 우리 나라 수산물의 40%를 함경 남북도의 해안에서 차지한다. 또한 서해안의 넓은 간석지도 훌륭한 어장이다.

풍부한 우리 나라의 수산 자원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후부터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이바지해 왔으며 그 전망이 넓게 열려졌다.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수산 부문도 많이 발전했다. 전쟁 기간에 원쑤 미제가 혹심히 파괴한 상처를 급속히 복구하고 더 확장하여 전쟁 전에 비하여 기계' 배는 거의 2배로 늘었고 돛배도 131%로 늘었다. 또한 수산 부문의 사회주의 경리 형태는 9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리하여 전쟁 전에 비하여 133%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인민들에게 공급하였다.

이것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인민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힘써 왔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이번 4월 18—19일에 열렸던 로동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에서는 이 성과에 머물지 않고 3차 당 대회가 내세운 길을 따라 수산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과업을 내세웠다.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해마다 60만톤의 수산물을 인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데까지 수산업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김 일성 수상이 일찌기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 극히 중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 고기는 공업 원료로, 가축 사료와 비료로서도 중요하며 외국과 무역하는 데도 많이 쓰인다.

그러면 앞으로 수산물을 많이 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찾아 오는 고기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와 먼 바다에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으며 고래 잡이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많이 개척되지 못한 서해에서도 1—2년 이내에 한해에 10만

이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해방전 (1941년도) 전조선의 소 175만두, 돼지 163만두와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톤의 고기를 잡게 된다.

고기 잡이를 나갈 때 한가지 그물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세가지 그물을 갖추어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발견되는 고기떼에 따라 자유로이 고기를 잡으며 낚시질까지도 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된다.

그리고 고기떼를 제때에 찾아내기 위하여 비행기도 날게 되며 어군 탐색대도 내보내게 되였다.

한편 깊은 바다, 먼 바다에서의 물'고기 잡이에 알맞는 배를 더 많이 만들며 서해의 고기 잡이에 필요한 소형 기관선, 물'고기를 먼 거리에서 운반할 수 있는 랭장 운반선 등 운반선도 만들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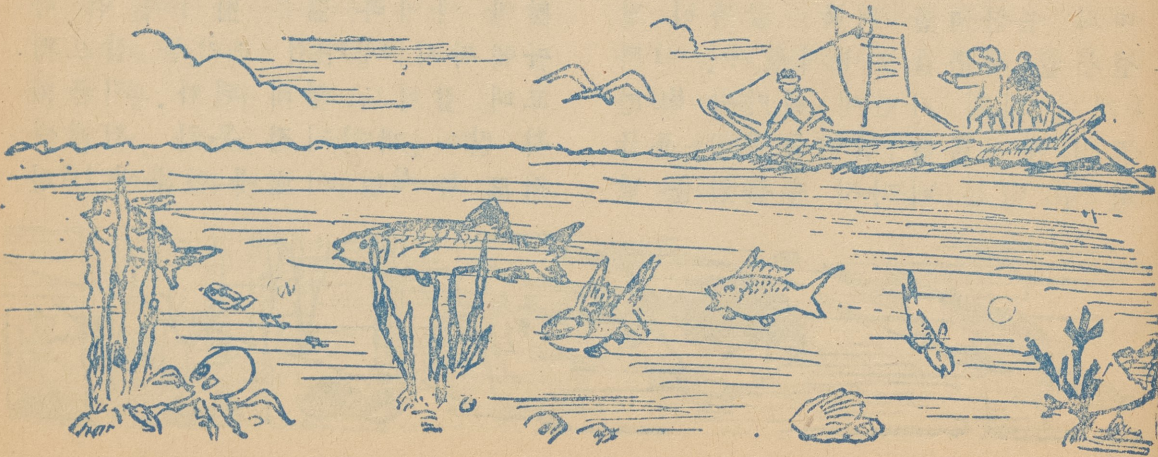
미역, 김, 굴을 비롯한 각종 패류 등 유용 수산 동, 식물을 이식하며 양어 사업도 발전시키며 수산물 자원을 잘 보호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많이 잡은 물'고기는 40%를 생선으로, 나머지는 잘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게 되였다.

빛나는 이 전망은 젊은 청년들이 고기 잡이에 더 많이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산 협동 조합을 더욱 발전시켜 개인 고기 잡이도 모두 이에 참가하게 되며 반농 반어 협동 조합도 더욱 발전시켜 깊은 바다와 얕은 바다에서, 가까운 바다와 먼 바다에서 새로운 기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기 잡이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60만톤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은 더욱 꽃필 것이다.

로동당이 가리킨 길이 언제나 승리한 것처럼 이번 로동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가 내세운 수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은 우리의 생활에서 빛날 것이다.

바다! 조국의 바다는 부른다.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튼튼히 다지며 자라서 바다에도 진출할 것을!

부르자! 싸움의 노래를

남궁 만

1930년 8월에 일어난《평양 고무 제네스트》는 평양 고무 로동자들이 자본가들과 왜적을 반대하여 싸운 아주 유명한 투쟁이였다.

로동자들은 임금을 내리우는 것을 반대하여 일어났다. 평양은 그 당시 고무 공업의 중심지였다. 수많은 자본가들이 《고무 공업 동업자 회의》를 열고 로동자들의 임금을 아무런 리유도 없이 대번에 17%나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였다.

그때 어른들의 임금은 보통 하루 70전에서 80전이였고 소년공들은 겨우 30전이였다. 여기에서 또 17%나 낮춘다면 어른들이 겨우 하루에 50전에서 60전, 소년공들은 20전 푼수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였다. 로동자들은 피 땀을 흘려 일을하고도 결국 굶어 죽으라는 말 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각 공장 로동자들은 일제히 총파업으로 들어 갔다. 파업이 일어나자 파업 로동자들은 제각기 자기 공장들을 점령하였다.

공장은 로동자들의 피 땀으로 세운것이다. 로동자들은 공장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승리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장에서 한 발자욱도 물러서서는 안된다. 그래 젊은 아저씨들은 공장을 수비하고 아주머니들과 늙은이들도 공장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았다.

이때 소년공들의 투쟁은 참으로 눈부셨다. 소년공들은 삐라를 들고 공장과 공장으로 달려 갔다. 경찰의 총칼을 뚫고 비밀 련락을 다녔다.

로동자들의 파업에 놀랜 자본가들은 왜놈의 경찰을 동원하였다. 언제나 자본가의 편인 왜놈의 경찰은 총칼로 위협하며 로동자들을 잡아 갔다. 그리고 경찰놈들은 공장을 쳐부시고 들어 와서는 공장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경찰놈들의 총칼을 맨주먹으로 막아내며 싸웠다.

이런 때면 의례히 소년공들의 삐라는 하늘 높이 오르는 것이였다.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우리는 일하고도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길 때까지 싸웁시다!》.

《끝까지 싸우자!》.

소년공들의 야멸찬 소리에 감격된 로동자 아저씨들은 크게 부르짖는 것이였다.

소년공들은 어느 공장이나 잘 조직되여 있었다. 그것은 파업이 시작된 뒤에 조직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훈련되여 왔던 것이다.

직공 조합에서는 집안이 가난하여 배우지도 못하고 고달픈 로동에 시달리는 소년공들을 위하여 야학을 차렸다. 그리고 공장마다에는 체육 써클, 예술 써클이 조직되여 있었다. 그래 일하면서도 어

린이들은 야학에 나가고 써클에서 훈련이 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하면서 배운다는 것도 정말은 어려운 일이였다. 소년공들에게는 《밤' 일》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였다. 소년공들은 아침 일곱시에서 저녁 일곱시까지 일해야 겨우 30전의 품삯을 준다. 하루 열두 시간 고달픈 로동에 시달리고 나면 정말 코에서는 피비린내가 풍긴다. 그런데다 자본가들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밤' 일》을 시키기가 일수였다. 그것은 밤 열한시까지다. 이런 때면 품삯은 없이 저녁에 국수 한그릇으로 하루 열여섯 시간이나 시달려야 하는 것이였다.

이것은 정말 어린이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일이였다. 소년공들은 눈앞이 아찔하여 쓰러지기가 일수였다.

그러나 소년공들이 분한 것은 야학에나마 나가서 글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였다. 고달픈 로동에 시달려 쇠잔해진 어린 일'군들이 마음대로 쉬고 뛰놀고 싶은 마음인들 오죽이나 간절하랴만 그 쇠잔한 몸을 끌고라도 야학으로 못가는 것이 분하고 원통하였다.

소년공들은 이미 자기가 할 일을 알고들 있었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배우기 위하여는 야학으로 가야 한다. 써클에서 책을 돌려 보고 예술 공연을 가지고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로동자들의 피땀을 긁어 먹는 자본가들을 때려 부실 수 있게 준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 소년공들은 파업 투쟁에서 갑절이나 신바람이 났다.

《싸움에 이겨야 한다. 자본가들을 때려 부셔야 한다!》 다같이 이런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였다.

이것은 정창 고무 공장에서 있은 일이였다. 공장에서는 파업 로동자 아저씨들을 위하여 써클 공연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조금 전에 물러 갔던 무장 결찰놈들이 다시 트럭을 몰고 왔다.

이것은 큰 일이다. 조금 전에 벌어졌던 싸움에서 많은 로동자 아저씨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그래 부상 당한 사람들을 치료소로 데리고 가고 공장은 잠시 아주머니들과 늙은이들만 남아 있는 때였다.

트럭은 으르렁거리며 공장 문을 부시며 기여 들었다. 늙은이들과 아주머니들이 아우성 치며 달려 들었으나 경찰놈들은 총칼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늙은이, 아주머니들은 이마에 붉은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트럭은 더욱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공장으로 기여든다. 공장으로 들어 오면 큰 일이다. 한번 빼앗기면 공장을 다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럭은 그냥 밀고 들어 오고만 있다.

이때였다. 한 소년공이 몸을 날리는 듯이 재빠르게 달려와 트럭 앞에 넙적 엎드렸다. 그리고는 힘차게 웨쳤다.

《얘들아! 우리는 뭐라구 맹세했니? 져서는 안 된다. 경찰놈들을 몸으로 막아내자!》.

《옳아! 철이의 뒤를 따르자!》.

지금까지 무대 우에 서 있던 소년공들은 일제히 달려와 자동차 앞에 엎드렸다. 그러나 트럭은 그냥 으르렁거리며 들어온다. 이윽고 자동차 바퀴는 소년들의 몸에 다달았다. 으르렁거리는 자동차 바퀴는 막 소년공들의 옷깃을 감싸며 다가 든다. 그러나 소년들은 땅 바닥에다 얼굴을 팍 묻었다.

일은 참으로 위태롭게 되였다. 소년공들은 죽은 듯이 움직일 줄을 모른다. 트럭은 그냥 으르렁거리며 대여 든다.

《얘들아! 일어나거라!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다!》.

아주머니들은 더는 참고 볼 수가 없어 그만 악을 쓰듯 부르짖으며 달려 들었다. 그러자 먼저 엎드렸던 철이란 소년이

《얘들아 우리의 노래를 부르자! 싸움의 노래를!》.

하고 웨치자 소년들의 입에서는 우렁찬 노래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하였다.

싸우자! 원쑤를 무찔러
승리의 기'발을 날릴 때까지……

노래 소리는 더욱 우렁차게 울려 번졌다. 어느 사이엔지 달려 들려고 하던 아주머니들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늙은이들도 목메인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악랄한 왜놈들도 어린 동무들의 기세에 눌리여 그만 트럭을 뒤로 물리기 시작하였다. 트럭은 몸부림치며 뒤'걸음질 한다. 노래 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려 번진다.

바로 이때였다. 젊은 아저씨들이 달려 왔다.

《경찰놈들을 때려 부서라!》.

함성은 높이 올랐다. 경찰놈의 트럭은 그만 꽁무니로 연기를 뿜으며 달아나고 말았다. 그러자 아주머니들은 달려 들며 철이랑 소년들을 얼싸 안았다.

《용타! 장하다! 너희들까지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데 우리가 왜 못 이긴단 말이냐》.

아주머니들의 눈과 눈에는 눈물이 아롱졌다. 이윽고 모든 로동자 아저씨들은 감격에 북받쳐 흐느꼈다.

마을을 깨끗이 하는 소년단원들

아침마다 6시 싸이렌 소리와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는 4분단 1반 동무들의 힘찬 조기 체조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공기를 깨뜨리던 반장 동무의 《하나, 둘》하는 구령이 멎은지 얼마 안 돼서 큰길에서는 비'자루와 삽들을 멘 소년단원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거리를 깨끗이 하는 자랑으로 서로 다투며 일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날마다 이처럼 말끔히 쓸고 물을 뿌리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게 된 이들은 얼마전에 반 모임에서 이런 것도 새로 의논했습니다.

—군 인민 위원회 옆 길에 있는 꽃밭과 가로수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가꾸자고,

그후부터 이들은 아침마다 가로수와 꽃밭에 물을 주며 돌각담도 아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리 상규 동무의 뒤를 따라 자기 집 변소와 집 주위도 깨끗이 걷으며 쥐 잡이와 파리 잡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물론 집 식구들까지도 파리와 쥐 잡이에 나서도록 하기 위하여 왜 파리와 쥐를 잡아야 하며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군 합니다.

이들의 모범은 어느덧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알려져 모두다 이들을 본 받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함남 정평 인민 학교 대에서

행군을 앞두고

박 정 렬

행군 준비 사업에 대한 경험 기사를 소개한다

봄방학을 앞둔 소년단원들의 마음은 한량없이 즐거웠습니다.

저마다 짧은 방학이나마 이 휴식 기간을 흥미있게 보낼 가지가지의 꿈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대위원회의 봄방학 계획에 들어있는 행군은 소년단원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행군을 떠날 것인가?》 하는 의논에서 어떤 동무들은 부전 고원으로 또는 함주군으로 갈 것을 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고향에서 백리나 되는 부전 고원은 너무 멀다거니 함주군은 무연한 벌로만 행군해야 한다거니 하여 신통치 않다고들 했습니다. 한참 옥신각신하는 판에 홍 금순 동무가 언젠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정평의 천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김에 모두 력사에서 배운 천리성—거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고려의 류소 장군의 지휘 하에 쌓았다는 천리성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도 정평은 오리 목장도 있고 기상 관측소도 겸해서 견학할 수 있는 참 좋은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이튿날 대위원회 벽보에는 행군 목적지와 행군 날'자를 알리게 되였던 것입니다.

☆대 열성자 모임에서

행군을 앞둔 열흘간은 몹시 분주했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행군 희망자들의 기대에 어김없도록 흥미있고 유익한 행군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위원회에서는 3월 20일에 대 열성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의논에서 이들은 행군 특집호로 대위원회 벽신문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년단원들에게 행군 목적지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이들은 행군 행로와 계획을 훌륭히 세우도록 김 덕, 홍 금순, 한 창수, 리 정길 동무들에게 위임한 후 행군 도중 다양한 사업 설계도 했습니다.

☆선발대가 조직되였다

행군 행로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군 목적지의 지리, 자연 조건 및 력사등을 자세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 열성자 모임에서 선발대로 뽑힌 한 영남, 김 순화 동무들은 방학이 시작되자 곧 김 진권 선생님과 함께 정평으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에 닿자 이들은 숙영지와 견학 대상지들을 돌아 보고 그 지대 향토사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마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아저씨도 방문했습니다.

돌아 오면서 이들은 행군 도중 휴식 장소도 정해 놓았습니다.

☆크루쇼크들에서의 활동

행군을 준비하는 력사 크루쇼크에서는 천리성과 고려에 대한 력사를 학습해 나가기 위하여 본궁 력사 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농민들의 의병 운동과 정평군의 향토사를 결부시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행군에서 고려 당시 주민들의 생활 풍습과 천리성에 대한 연구 발표회도 가지며 선조들의 력사 유물을 수집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 크루쇼크에서는 선발대로 활동한 영남 동무와 순화 동무의 도움을 받아 행군 략도를 훌륭히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정평군의 자연 지리 조건을 배워 나가기 위해 방위 측정법과 거리 판정 등을 배워 나가며 기상 관측소 견학 준비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행군을 보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행군 희망자들 가운데서 연예 써클도 조직했습니다.

날마다 이들은 노래와 춤, 스켓취, 동화 구연 등을 련습하며 새로운 군중 무용도 배웠습니다.

☆흥미 있는 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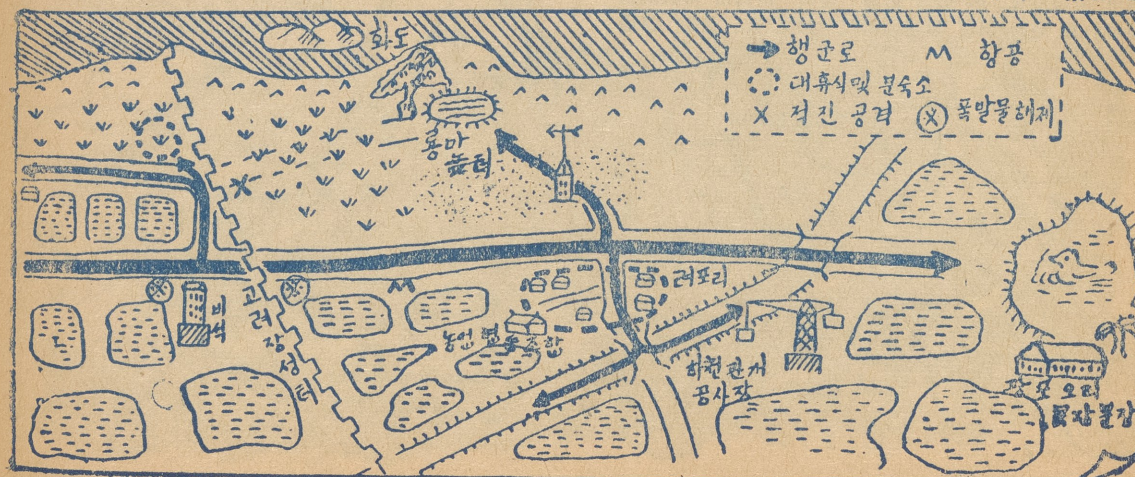
홍남에서 정평까지 60리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동무들 가운데는 기차를 타고 갔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대위원회에서는 소년단원들에게 행군을 가지는 의의와 목적을 인식시키며 능히 도보로 행군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도록 행군 도중 여러 가지 흥미있는 유희들도 계획했습니다.

군사 유희도 하기 위해 이들은 먼저 행군 희망자들로 분대와 소대, 중대를 짜고 이들의 의사에 의하여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들을 정했습니다.

《대대장》김 덕 동무의 지휘 밑에 다섯개의 중대와 열개의 소대가 일제히 행동하도록 규률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대마다에는 위생병과 련락병, 신호수 등을 정하고 모든 행동을 기'발과 라팔의 신호에 의하여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모두 행군시의 신호와 도로 표식에 대해서도 배워야 했었습

니다.

처음으로 이런 군사 유희를 하게 되는 것만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답니다.

방과 후면 소대 또는 분대별로 행군 련습을 위해서 가까운 곳으로 산보도 하며 ㅁ동산 고지 점령 또는 적병 포로 유희도 해 보군 했습니다.

많은 동무들이 이 유희를 퍽 흥미있어 했습니다.

☆행군의 마지막 준비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100여리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이 부르트지 않는가?».

«소지품들을 어떻게 차리고 떠나야 할 것인가?» 등 서로 의논하며 몸이 튼튼한 동무들로 후방 부대도 조직했습니다.

서로 도와 매개 소년단원들이 행군에 가지고 갈 물건들을 갖추도록 하며 대위원회에서는 행군에서 우수한 소대와 분대에 표창할 상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 창수 동무의 제의에 의하여 그곳 소년단원들과 친선 체육회를 가지기 위한 준비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행군을 떠날 때까지의 이들의 준비는 훌륭히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행군에서 돌아 오면 곧 벽보에 감상문과 행군에서 그린 그림들이 나 붙게 될 것입니다.

그후 전해 온 소식에 의하면 이들의 행군은 기쁨과 흥분 속에서 보람있게 진행되였다고 합니다.

함남도 흥남시 제1 고급 중학교
(초급반) 대에서

4월 1일

※※※※※※※※※※※※※※※※※※※※※※※※※※※※※※※※※※※※※※※

놀음감만들기

«기마병»

이 놀음'감은 전호에 게재한 «북치기» 만드는 법과 비슷합니다.

«기마병»을 끌면 말 머리가 꺼덕꺼덕거리며 뛰는 말 흉내를 내는 놀음'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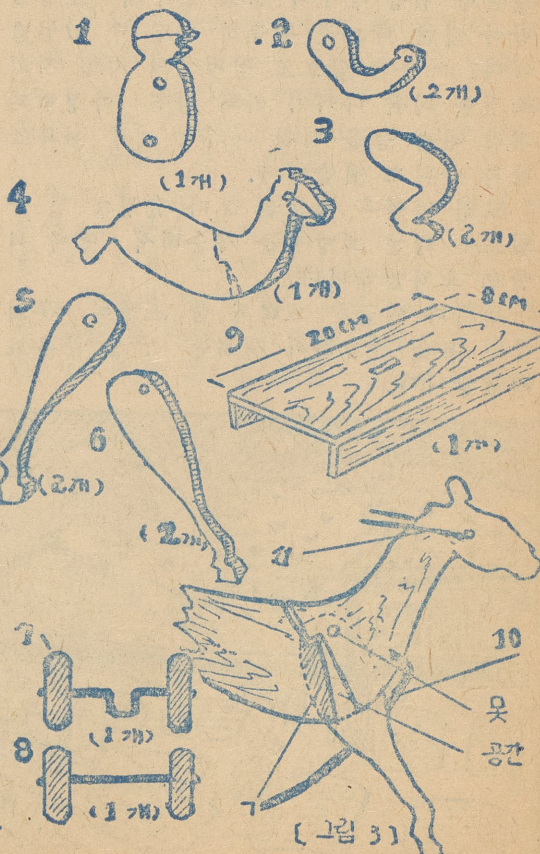
이것을 만드는 데는 널판자, 철사, 못이 듭니다.

주의할 점—그림 3과 같이 말의 몸뚱이(4)를 두 부분으로 짜릅니다. 앞발(6)의 일부분을 (ㄱ) 부분에 움직이지 않게 까풀로 붙인 다음, 앞발의 다른 부분을 그림처럼 공간을 두고 말의 몸뚱이 앞부분에 대고 못을 박습니다. (말머리가 앞뒤로 흔들릴 수 있게 구멍을 뚫고 박아야 합니다)

«기마병»의 다리는 말의 몸에 붙이고 «기마병»의 몸만 움직이게 합니다.

× × ×

이상과 같은 방법들을 리용하여 다른 놀음'감을 만들어 보십시요. 이 놀음'감을 많이 만들어 탁아소나 유치원에 있는 어린 동생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번역동화 수탉은 왜 새벽에 우는가

르. 꾸쉬니로브

어느날 해'님이 지쳐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무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매일 아침 높은 봉우리 우에 올라가 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님은 너무 지쳐서 이불 밑에서 나오고 싶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세상은 캄캄해 지고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얼굴을 찌프리고 걱정들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가? 땅 우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과 새들은 한데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오래'동안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해'님한테 특사를 보내기로 했지요. 그런데 해'님이 솟아 오르도록 잘 타이르게 하려면 누구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의논한 끝에 드디여 새들 가운데서 특사를 뽑아 보내기로 했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해'님에게까지 올라 갈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해'님이 사는 집은 저 멀리 수풀 뒤, 높은 산 뒤, 그나마 먼 바다 저쪽에 있답니다. 그런데 새 중에서도 아주 이쁘게 생긴 공작새를 특사로 보내기로 했지요. 그것은 해'님이 이쁜 공작새를 한번 보기만 하면 반해서 그의 청을 안 들을 수 없을테니까요.

공작새는 해'님한테로 날아 가서 그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거 누구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해'님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공작이라는 새입니다—하고 그는 겸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당신에

게 간절한 부탁이 있어 왔는데 모쪼록 하늘에 떠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당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꼴이 사납습니다!».

«누구의 꼴이 사납단 말입니까»

하고 해'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말입니다—하고 공작새는 대답했습니다—이렇게 화려한 공지를 가진 제가 캄캄한데서는 까마귀와 아무런 차이가 없구만요».

«그럼 당신에게 내가 필요하단 말씀이지요? 당신의 공지를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썩 물러 가시요! 난 당신의 공지를 위해서 이 세상을 비쳐 주지는 않겠습니다»하고 해'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작새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 왔지요.

그 다음에는 꾀꼴새가 해'님한테로 떠나 갔습니다.

—꾀꼴새는 목소리가 아름다우니까 해'님이 그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의 청을 꼭 들어 줄 거다—

하고들 모두 생각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꾀꼴새가 해'님한테 가서 노래를 부르자 잠이 깬 해'님의 잠고대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 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로군…그래 자네는 어떻게 돼서 나한테 왔나?».

«네, 빨리 하늘에 떠 오르세요. 인젠 잠을 그만 자세요»

하고 꾀꼴새는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밤에는 노래를 못 부르는가?»

하고 해'님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도리여 밤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지 않으면 줄곧 노래를 부르기에 목이 쉬던가 그렇지 않으면 못 쓰게 되던가 하니까요»

하고 꾀꼴새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네의 목이 못 쓰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떠 줘야 한단 말이지!? —해'님은 꾀꼴새에게 수모를 받은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그래 나더러 좀 쉬라는 놈은 아무도 없지, 썩 물러 가라!».

그래서 꾀꼴새도 할 수 없이 공작새의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 왔지요. 그 다음 꾀꼴새의 뒤를 이어 앵무새가 해'님한테로 갔답니다. 앵무새는 해'님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지요.

«제발, 떠올라 주십시요! 캄캄한데서는 아무 것도 뵈이지 않으니 내가 누구를 흉내 내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흉봐야 할지 또 그가 성을 내는지 어떤지도 보지 못하니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요…».

해'님은 이런 말에는 대답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앵무새는 자기가 남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데 편리하게끔 해 달라는 것이 뻔한 일이였으니까요.

앵무새도 그냥 돌아 오자 수탉이 자기를 해'님한테 보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누구도 수탉이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답니다. 수탉은 그렇게 이쁘지도 못하거니와 또 그의 노래란 아주 퉁명스럽고 멋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새들은 아무도 해'님한테 가겠다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수탉이 가게 됐습니다.

수탉이 해'님한테 도착하자 바로 그 때 해'님은 달콤한 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탉은 조용히 그의 벼개 맡에 가서 자기의 툭한 목소리로 한 마디 늘여 뽑았지요. 그랬더니 뜻하지 않은 일에 해'님은 이불을 걷어 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은 당장 환하게 밝아지고 해가 비쳐였답니다.

«거 누구요? 무엇이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해'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수탉은 다시

«끄끼—요! 잠꾸레기여 일어나십시요! 자기의 의무를 모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무 무슨 의무라구?».

하고 해'님은 기지개를 켜면서 물었습니다.

«빛을 비치고 볕을 쪼이십시요! 당신이 없으면 땅 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하고 수탉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을 아무런 보람 없이 일했지요—하고 해'님은 말했습니다—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란 없으니까요. 공작새란 놈은 자기 공지만 알고 또 앵무새는…».

«당신은 사람에 대해서는 잊어 버렸습니다—하고 수탉은 말했습니다—당신과 함께 일어나는 늙은 농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한테 두 손을 벌리고 〈오, 해'님이여! 우리 논밭을 잘 돌봐 주십시요!〉하고 말한답니다».

«사람들이라구? 그래 내가 비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지?»

하고 해'님이 물었습니다.

«그렇구 말구요. —하고 수탉은 대답했습니다—자 좀 생각해 보십시요. 사람들이 파 놓은 여러 저수지들에서와 벼'잎에 맺힌 수 많은 아침 이슬 방울들에 당신의 얼굴이 얼마나 수 많이 반짝입니까. 그리고 아낙네들이 물을 긷는 반들반들한 물동이와 밭을 일구는 농민들의 쟁기에는 당신의 빛발이 얼마나 많이 번쩍입니까! 그리고 처녀들의 거울에도 당신의 얼굴은 비치우는데 처녀들은 그것을 고이 간직해서 자기의 애인들에게 보낸답니다…만일 사람들을 일깨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세상이 어두어진다면 그때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에 비치는 그 수백만개의 해'님을 당신은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님은 좀체로 들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노래는 달콤하네. 수탉, 여보게! 그러나 나는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네, 그러니 인젠 좀 쉬여야 하겠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남을 죽이는 법이랍니다. 그래 해'님이여 당신은 일을 잘한 자만이 쉬기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하고 수탉은 타일렀습니다.

해'님은 수탉과 더 말 다툼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해'님은 하늘로 솟아 올라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상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탉은 그 때부터 매일·새벽에 일어나서 목청을 돋구어 큰 소리로 울어대게 되였답니다. 그런데 그의 첫번째 노래는 해'님한테 보내는 것인데

«끄끼요! 잠을 깨시요. 일할 때가 됐습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 둘째번 노래는 땅에 보내는 노래인데

«눈을 뜨시요! 종자와 뿌리들은 이슬을 힘껏 마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세번째 노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랍니다.

«일어나십시요! 해가 뜹니다! 땅은 당신들의 손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끄끼요!»하고요.

(김 원필 역)

학교에서처럼

◇최 옥 선◇

오후가 되면 학교에 갔던 형제들은 모두 돌아와 집에 모입니다. 형제들은 제각기 집에서 생활하는 자기의 일과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째 동생 정옥이는 학교에서 돌아 오면 방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는 동생과 함께 이튿날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직장에서 돌아 오시는 아버지(공훈 배우 정 남히)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정옥이의 일과표 첫머리에 씌워진 일입니다.

정옥이는 오늘 분단 모임 준비 때문에 여느 때보다 좀 늦어서 집에 왔습니다. 정옥이는 방에 들어서는 길로 《내 명령이다 이제부터 청소를 하겠으니 모두 방에서 일어 나시요》하고 깔깔 웃으며 소리를 쳤습니다.

입을 삐죽 내밀고 싱글싱글 바라보던 맏 오빠 영선이는 《요건 요즘 분단 위원장이나 됐다구 오빠두 몰라 보는구나 난 네 명령 안 듣겠다. 밥을 먹었으니 잠을 좀 자야지》라고 하면서 아래'목에 길게 들어 누웠습니다.

정옥이는 안타까와 상을 찌프리며 《언니야 영선이 좀 봐》하고 애걸했습니다.

《영선아 그러지 말아, 어머니 오실 때가 됐는데 방을 깨끗이 치워야 할게 아니냐! 난 춘옥이를 데리고 저녁 준비를 할게 너는 물을 긷도록 해라 응》하고 맏 누나인 금녀가 말했습니다. 막내 동생 정선이도 《누나야 난 강아지 집을 청소하구 밥을 줄테야. 그리군 정옥이가 청소한 깨끗한 방에서 공부할래》라고 말했습니다. 《응 그래, 영선아 정선이도 이렇게 자기 맡은 일을 꼭꼭 하려고 하는데 넌 학교 일은 잘 한다면서 집에 와선 그게 뭐냐?》. 금녀 누나는 영선이를 일으켜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두 해! 오! 내가 참 잊었댔구나! 난 오늘 애들과 뽈 차자고 약속했어》. 영선이는 벌떡 일어나 대문 밖으로 나가며 《누나야 내 조금만 뽈을 차고 올게 욕하지 말어 이제 갔다 와서 물을 열번 길어 줄테니》하고 열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어디론가 달려 가고 말았습니다.

이날 저녁 땅거미 들 때에야 돌아 온 영선이는《나 래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 길을테야 응》. 미안한 듯 한마디 하고는 노근해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 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며 영선이를 찾았습니다. 영선이는 정신 없이 벌깍 일어나 《어머니 내 옷, 누나 내 양말》 하고 휩쓸며 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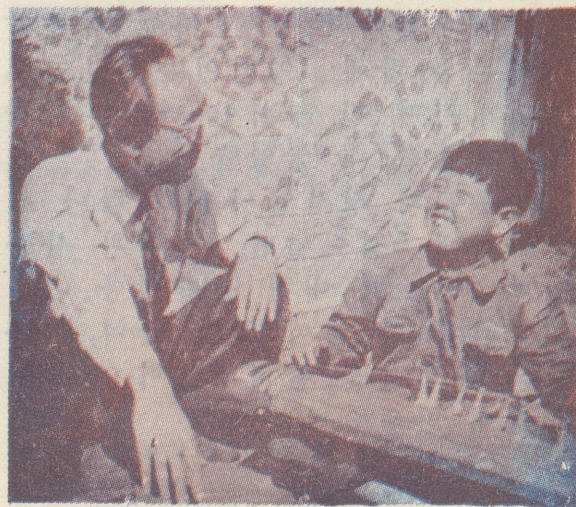
《아니 너 왜 그리 덤비냐? 응》 하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 오늘 저녁 수직인데 잊었댔어》 하고 입을 삐죽 내밀고 대답하는 바람에 집안 식구가 모두 웃음통을 터뜨렸습니다.

《영선이는 게으름뱅이가 되는구나 춘옥이게 난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이야 하고 자랑하든 영선이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초급반 2학년 춘옥이가 검은 색 연필을 들고 벽에 붙인 그라프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영선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은 잘 듣는 척 하면서 우리끼리 있을 때면 하자는 일을 안 하려구 핑게만 대요. 오늘은 학교 규률까지 위반했으니까 검은 줄을 두간이나 올려야겠어》 하며 그라프를 올렸습니다.

이들 다섯 형제는 그라프를 만들고 소년단원다운 일을 했을 때에는 붉은 연필로 올리고 규률 없는 일을 했을 때에는 검은 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때로 선물을 사가지고 오셔서는 붉은 줄이 높이 올라간 애들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선이는 요즘 누구보다 선물을 적게 받는 사람으로 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이번에는 잘 됐어요?◇

◇야! 형님의 검은 줄이 전선'대와 같구나◇

두간이나 올라간 검은 줄을 보고 전선'대 같다고 식구들은 모두 놀려 주었습니다.

영선이는 물끄러미 바라보다 《너희들은 실수할 때가 없겠니 두고 보자》 하며 학교로 달려 갔습니다.

* *

지난 학기 말이였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집으로 달려 와 서로 자기 성적을 자랑하며 떠들썩했습니다. 정옥이는 최우등, 춘옥이는 우등, 모두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선이만은 성적증을 감추며 돌아 갔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보자고 떠들석하는 바람에 영선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맏 누나인 금녀 앞에 성적증을 내 놓았습니다.

우등의 성적입니다. 그러나 전 학기에 5점이였던 지리와 산수가 4점으로 내려 갔습니다.

한참 말 없이 있던 금녀 누나는 동생들을 둘러 보며 영선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집에 와서두 노는 데만 정신이 있더니 좋아진게 있니? 너는 벌써 모든 것을 다 잊고 있어,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난 아직도 이가 갈리고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어떻게 갚을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동생들도 맏 누나를 바라보며 눈물이 글성글성해지는데 영선이도 주먹 같은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섯 형제의 본래 아버지는 평남 대동군 빈장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원쑤놈들은 아버지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한 로동당원이라고 구뎅이 속에 넣고 총살했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지면서 공화국 정부 만세를 웨쳤습니다. 어머니와 다섯 형제는 갇혀 있던 창고 속에서 모두 가슴을 쥐여 뜯으며 이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후 몇달이 지나 어머니마저 원쑤놈들의 폭격에 어린 동생을 업은 채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지금의 어머니는 그들 오형제를 모두 데려다 친 부모와 같이 사랑하고 귀여워하면서 자래우고 있습니다.

돌아 가신 부모의 원쑤를 갚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을 행복하게 길러 주시는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힘을 다 하여 앞날의 훌륭한 일'군이 되겠다고 마음 다져 온 그들은 오늘 누나의 타이름을 받고 더욱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 *

지금의 영선이는 아주 어른 같아졌습니다. 그전에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면 빨리 하고 누나가 시키면 자기 볼'장을 다 보고야 하던 버릇도 없어지고 늦잠 자던 버릇도 고치고 지금은 일찍 일어나 아침 공부도 잘 합니다.

그리고 오는 소년단 명절에 입단하게 되는 동생에게도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와 구호, 소년단 생활을 가르쳐 주면서 맏 누나를 보고는 넥타이를 준비하라고 야단합니다.

◇《어서 너도 많이 먹어》 막내 동생 정선이는 개에게 먹이를 준다◇

어머니가 하루 학부형 회의에 가셨는데 담임 선생님도 영선이가 그전과는 달리 아주 학습에 열성이며 모범 학생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집 벽에 붙인 영선이의 그라프에도 붉은 줄이 전선'대 같던 검은 줄을 따라 넘어 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구데기와 너삼뿌리

구데기는 파리의 알에서 까난 파리의 유충이다.

5월 중순이면 벌써 변소나 어지러운 곳에서 파리가 쓸어 놓은 알에서는 구데기가 발생한다.

구데기는 약 1주일 후에 번데기로 되였다가 다시 파리로 된다. 파리는 늦 가을까지 수십회 번식한다. 파리는 무서운 전염병을 전파하여 사람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리를 남김 없이 잡아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파리를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파리의 유충 구데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구데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름철 변소에 구데기가 많이 생기면 끓는 물을 치거나 생석회를 뿌려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동무들은 흔히 초여름 산과 들에서 줄기 혹은 가지 끝에 연한 누런 색 나비형 꽃을 피우는 너삼 (일명 능암이라 함)을 볼 것이다.

이 너삼은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인데 뿌리와 줄기의 즙액 (물)이 독하기 때문에 구데기를 죽이는 가장 좋은 약이 된다.

앞으로 변소에 너삼 뿌리를 짓찧어 넣어 보라. 구데기는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제6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 · 모쓰크바 1957

제6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준비

머지 않아 7월 28일이면 쏘련의 수도 모쓰크바에서 제6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열리게 된다.

축전은 평화와 친선을 바라는 세계 모든 나라 청년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 춤추고 노래 부르며 어깨 겯고 뛰놀면서 굳은 친선과 단결을 시위하게 될것이다.

이제 축전의 기'발이 드높이 오를 모쓰크바의 하늘에는 이날 축전의 옛전통 대로 수만 마리의 비둘기가 하늘 높이 날아 오를 것이며 축전에 참가한 모든 나라 대표들은 자기 민족 의상에 기'발과 표식, 상징들을 들고 모쓰크바의 중앙 거리를 지나게 될 것이다.

축전에서는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의 군중 모임이 진행될 것이며 다채로운 예술 공연과 세계 청년 친선 경기가 진행될 것이다.

벌써 축전에는 140개의 나라에서 참가할 것을 신청했으며 3만 여명이 참가할 것이다.

지금 쏘련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청년 학생들은 축전 참가 준비에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친선과 영예를 위하여

1957

공화국 스포츠 명수 김 병삼

모쓰크바에서 열리는 제6차 축전과 함께
열리게 되는 제3차 세계 청년 친선 체육
경기는 우리 체육인들의 심장을 들끓게
합니다.
우리 체육인들은 모쓰크바에서 여러 나
라 청년들과 평화와 친선을 위한 단결을
더욱 굳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체육인들은 항상 조국의
영예를 국제 무대에 떨칠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우리 당과
정부가 베풀어 주는 참된 생활 속에 자유
롭게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무진
장한 힘을 시위하기로 맹세하고 있습
니다.
매일 우리들은 체육 기술의 완성을 위
하여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에
훈련을 쌓고 있습니다.

국제 청년 친선 체육 경기

◦ 조선의 벗들을 기다린다 ◦

쏘련의 땀보브시 삐오네르 회관 수예 크루쇼크 원들은 조선의 벗들을 위하여 제 6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심청》 이와 같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여 주겠다

국립 민족 예술 극장 배우 리 순희

나는 매일 같이 《심청》의 역을 련습하
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전이 머지 않았는데 좀더 열심히
련습해야겠다. 지금 정도를 가지구야 어
떻게 모쓰크바의 무대에 나가겠는가?》
고.
이는 우리 창극단에 있는 모든 동무들
의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 인민은 《심청》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쓰크바 축전에 참가하여 우리는
세계 각국의 청년 학생들 앞에 창극《심청
전》을 통하여 우리 나라 인민의 아름다운
예술을 남김 없이 보여 줄 것입니다.
모쓰크바, 이곳에서 우리들은 마음껏
세계 각국 청년들과 만나 친선과 단결을
결의하며 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투
쟁할 결의를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쏘련 건축 과학 연구소의 젊은 과학 협조원 조라 쏘프로노바는 축전에 보낼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젊은 체육인 예술인들 축전을 앞두고 민족 예술과 튼튼한 체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이렇게 련습하고 있다

◦사진 민족 기악 합주, 롱구선수들의 련습, 자전거 선수들의 련습◦

우리들의 그림 페지

이런 버릇은 고칩시다

남조선에서

보라! 이 인간 백정들을

이것이 사람의 껍질을 쓴 짐승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한가지 놀음으로 삼고 있는 인간 백정 미제 놈들은 지금 남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잘 살겠니

아 들—아버지! 전보다 더 늦게 일하는데 왜 굶게 됩니까?
아버지—암만 일해도 소용없구나…
아 들—부지런히 일하면 잘 산다는데요?
아버지—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이 우리 등을 갉아 배를 채우는데 어떻게 잘 살겠니? 공화국 북반부처럼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잘 살지!

승냥이들의 강도질

지난 4월 16일 미군 헌병 80명이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용주동의 조선 사람 부락을 아무 리유도 없이 습격하고 2,324점의 물품을 빼앗아 갔으며 70여명의 부락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
만화가는 이 소식을 듣자 곧 그림을 그렸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강도질이니 승냥이로 그릴 수 밖에 없었다.

원 광수 그림

옛 이야기

추향로

◇김 소향◇

오랜 옛날 당락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추향로 집이라 부르는 오막사리 한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아들 순돌이가 호젓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는 선생님과 동네 어른들에게서도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짬만 있으면 어머니를 도와 추향로 나무를 열심히 가꾸며 아꼈습니다.

추향로는 아주 귀한 배였습니다. 꿀보다 달 뿐만 아니라 감기로 앓는 아이들이나 기침나는 늙은이들이 이 배를 구워 먹으면 그 몹쓸 병들이 똑 떨어지는 좋은 약이였으니까요! 몇백리 떨어진 먼 곳에서도 이 약을 구하려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돌 어머니는 독안에 잘 간직하여 둔 시'누렇게 무르익은 추향로를 몇알씩 나눠 주었습니다.

순돌 어머니의 이렇듯 고운 마음씨는 추향로의 이름과 함께 동네마다 고을마다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 *

원래부터 순돌이네 집에 추향로 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순돌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감기로 몹시 앓던 어느 해 겨울이였습니다. 순돌이 할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려는 오직 한 마음으로 눈보라를 헤치며 백리'길을 걸어 서간'골이라는 촌에 가서 간신히 추향로 한 알을 얻어 왔습니다.

그것을 구워 먹은 다음 순돌이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 났습니다. 그리고 추향로 씨를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던 할아버지는 이듬해 봄 그 씨를 앞뜰에 심어 애지중지 가꾼 다음 황실러 나무에 접을 붙여 놓고는 밤 잠을 자지 않으면서 돌봐 가꾼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돌아 가신 후 돈량이나 가지고 있는 욕심 많은 놈들은 추향로를 탐내여 순돌이네 집을 헐 값으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순돌 어머니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만은 지켜야 한다. 동네 아이들을 위해 나 많은 늙은이들을 위해 그렇게 공을 들이신 시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저바리랴) 고—

* *

어느 날이였습니다.

서당에 갔던 순돌이는 배가 아파서 일찍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어머니는

몹시 걱정되여 령심환을 구해다가 물에 타 먹이고 불'돌을 달구어 배에다 대여 주면서 《몹시 아프냐?》하고 걱정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얼마 후 순돌이는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순돌이는 잠에서 깨여 났습니다. 건넌 마을에서 첫닭 우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방등'불을 켜 놓고 조용히 앉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릴가요?

갑자기 창문에서 쏴—하는 소리가 한밤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순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겁에 질려 그만 이불 속으로 목을 움추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이 소리는 멎었습니다. 그러자 글을 외우는 것 같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였습니다.

그제서야 순돌이는 무서움을 참고 이불을 빠금히 들고 어머니를 엿보았습니다. 흙빛처럼 얼굴이 꺼멓게 된 어머니는 꿇어 앉아 눈을 감고는 손을 비비면서 무슨 대감, 무슨 대감을 련방 외우는 것이였습니다. 또 다시 쏴—소리가 요란히 들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무슨 발걸음 소린지 쿵쿵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 쉬고 기운 빠진 사람처럼 자리에 쓰러져 흠흠 흐느끼는 것이였습니다.

(무엇일가?《귀신》일가?《도깨비》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꼭 알아 내고야 말테다)하고 순돌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곰곰히 생각하였습니다.

* *

이튿날 밤이였습니다.

서당에 다녀온 순돌이는 다시 책보를 들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서당에서 글씨 쓰기 모임이 있으니 좀 늦어서야 오게 되겠습니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은 자꾸 깊어만 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울안에 있는 추향로 나무에 올라가 앉은 순돌이와 갑돌이의 가슴은 마구 울렁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괴물이 나타날 것만 같았으니까요.

순돌이는 어제'밤에 당한 일이 무섭고 이상하여 낮에 서당 아이들에게 죄다 이야기하고 오늘 밤 추향로 나무에 올라가 지켜 보기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갑돌아 정말 귀신이나 도깨비가 있을가?》.

《글쎄》.

순돌이의 마음은 점점 불안에 쌓였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길런지 모르니까요.

이윽고 건넌 마을에서 첫닭 우는 소리가 들려 오자 순돌이네 배추 밭 모퉁이에는 너풀거리는 흰 그림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흰 그림자는 훌쩍 뛰여 담을 넘어서더니 안 마당으로 들어 섰습니다.

순돌이와 갑돌이의 가슴은 방망이로 막 두다리는 것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은 죽은듯 고요한데 갑자기 쏴—소리가 났습니다. 어제'밤에 듣던 그 소리가 분명합니다.

바람이 휙 지나자 또 한번 쏴—소리가 났습니다. 방안에서는 순돌 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이즈러진 그믐달이 구름을 벗고 사위를 히끄므레 비쳤습니다.

찬 바람이 휙 지나갑니다. 그러자 흰 그림자 둘은 너펄너펄 움직거렸습니다.

(저게 무엇일가?)

순돌이와 갑돌이의 머리칼은 빳빳해지고 온 몸에는 진땀이 흠뻑 배였습니다.

때마침 흰 그림자 둘은 마당 앞을 지나 순돌이와 갑돌이가 올라간 추향로 나무 가까이로 다가 왔습니다. 그러자 순돌이는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그중 한놈은 분명 아래'마을 김 초시였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용기를 얻은 순돌이는 두 손'가락을 입에다 물고 휙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호령쳤습니다.

《네 이놈들—꼼짝말고 게 섰거라—나는 이 집을 지키는 배나무 신이다. 네놈들은 무엇 때문에 밤마다 이집 주인을 못살게 구느냐?》.

아닌 밤중에 추향로 나무 우에서 휙 소리가 나고 뒤미쳐 호통 소리가 나는 바람에 두 놈은 마당에 펄쩍 주저 앉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썩 빨리 대답 못할고?》.

갑돌이가 참다 못해 울려대는 말입니다.

《네네 저는…저저저 아래'말 사는 김 초시올시다.

얘는 새로 이사 온 김 진…리 진사 댁 마름이올시다. 이 이집 추향로를 탐낸 리 진사가 우리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하 하 하 하》순돌이와 갑돌이는 한바탕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놈들은 도망하려 하였습니다.

《이놈들 어델 갈려구—》. 몽둥이를 들고 숨어 있던 서당 아이들은 고함을 지르면서 와—달려 나와 놈들을 둘러쌌습니다.

* *

추향로 나무에서 뛰여 내린 순돌이와 갑돌이는 동무들과 함께 벌벌 떨고 있는 김 초시와 마름을 꽁꽁 묶어 대'돌 아래 꿇여 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달려 갔습니다. 어머니는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을 하고 아래'목에 쪼크리고 앉아 거의 정신을 잃다싶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안기는 순돌이를 꼭 품은 다음에야 어머니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웬 일이냐? 무슨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하고 묻는 것이였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심하세

요. 그놈들을 잡았습니다».

《그놈들이라니!? 응…》 이때 갑돌이는 등잔을 들고 밖으로 나와 김 초시와 마름놈의 머리를 들어 어머니에게 뵈였습니다.

순돌이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는 두 놈을 크게 꾸짖은 다음 되돌려 보냈습니다. 놈들은 기겁을 하여 도망쳐고 말았습니다.

가을마다 당락'골 소년들은 배를 따 먹으면서 추향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 *

추향로 추향로
꿀 맛 같은 추향로
고뿔 났는 추향로
욕심쟁이 리 진사놈
통으로 삼키려고
귀신 지랄 부리다가
순돌이의 꾀에 속아
혼쌀나고 도망 쳤네

계산 놀이

장기판과 같은 세로 가로 선을 많이 그은 판과 수'자를 써 넣은 장기쪽 같은 씨를 갖추면 된다.

씨에 써 넣는 수'자는 한가지 수'자가 여러 개 있어도 좋고 학년 정도에 따라 써 넣는 수'자의 자리'수를 높이는 것이 좋다.

노는 방법—이 놀음은 산수의 +, −, ×, ÷법으로 노는데, 노는 사람은 몇 사람이건 관계 없다.

먼저 노는 동무들이 씨를 2~3개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씨를 판에 편다. 이 때 굵은 선에는 씨를 펴지 않는다.

노는 동무들은 순서를 정하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한번씩 노는데 +, −, ×, ÷의 계산이 맞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를 판에 하나 놓고 량쪽에 있는 씨를 차지한다. (노는 법은 다음 그림 《ㄱ》 《ㄴ》《ㄷ》《ㄹ》 등을 보라).

한참 놓고 나면 그림 2 처럼 사이가 많이 빈다. 이럴 때 씨를 하나 놓고(그림 2 〈ㅂ〉) 4개의 씨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놀 때에 씨를 놓으면서 《가'법》《감'법》《승'법》 《제'법》이라고 동무들에게 알려 주면서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여 놀음이 끝나면 손에 쥔 씨에 쓰인 수'자를 다 합하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동무가 이긴다.

만약 자기 순번이 되여서 판에 놓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씨 하나를 놓기만 한다.

(이것은 순안군 구서 인민 학교 산수 유희장에서 이 학교 소년단원들이 즐겨 노는 놀음이다).

그림 1의 (ㄱ)는 $12-6=6$ 또는 $6+6=12$가 되기 때문에 6을 놓고 《가'법》 또는 《감'법》하고 부르고 량쪽의 12와 6자가 쓰인 씨를 차지한다.

그러나 $12\div2=6$ 또는 $6\times2=12$도 되기 때문에 2를 놓고 차지하는 것이 더 좋다. (ㄴ), (ㄷ)도 가감으로 노는 것이다. (ㄹ), (ㅁ)는 승, 제'법으로, (ㅂ)는 가, 감, 승, 제로 맞춘 것이다.

그림 1

4	41	50	2		7	1	21	13
1	19	7	53		72	49	2	44
19	32	25	5		4	6	31	18
3	9	26	8		15	12	5	9
《ㄴ》	4					6		《ㄱ》
39	5	13	6		66	6	24	73
42	1	10	2		15	3	37	12
11	4	3	33		53	21	14	97
19	18	45	17	7	24	10	8	64
《ㄷ》								

그림 2

파철의 려행

일요일의 한낮이였다. 내가 행길에 나섰을 때 행길 저쪽에서 딸딸… 무슨 바퀴가 굴어 오는 소리가 들려 왔다.

소년단원들이 손달구지에 파철을 모아 싣고 오는 것이였다.

그들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땅 속에는 철이 많다는데, 저 무산 광산에서 캐내는 것만도 굉장히 많다는데, 이렇게 파철을 모으지 않아도 되지 않을가?》.

파철 한개를 더 실으며 한 아이가 문득 동무들에게 하는 말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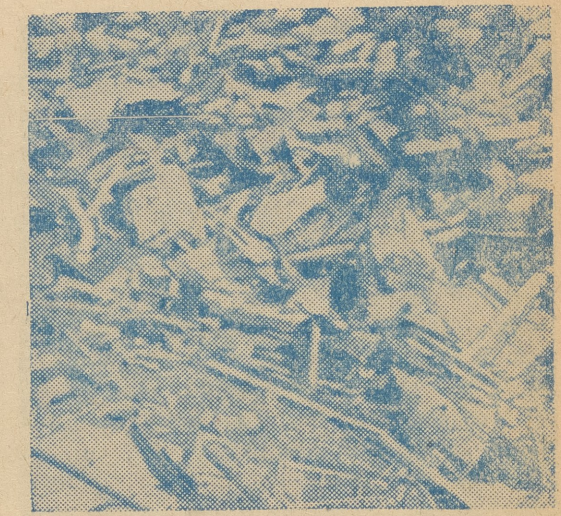
《캐내는 철도 많지만 또 우리 나라 어딜 가나 건설인데 얼마나 많은 쇠가 들겠니…》 하고 손달구지를 밀어 주는 아이가 대답하였다.

《정말 그럴거야, 쇠가 안드는데 없으니까》.

손달구지를 끄는 아이의 말이다.

자연'과 시간에 배운 철에 대하여 말하는지 선철, 연철, 강철… 하고 철에 대한

(1) 《애 이골목에는 참 파철도 많구나》.
《얼른얼른 싣고 또 저쪽에 가보자》.

(2) 《아저씨 이 파철을 언제 제강소에 실어 가나요》.
《얼른 실어 가야지 제강소 로동자 아저씨들이 기다리니까》.

(3) 제강소에는 파철이 산더미로 쌓였다 동무들이 모아 보낸 파철이 여기에 실려 오는 것이다.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그들은 골목 길로 사라졌다.

이들이 하는 일과 말을 보고 듣고 나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였다.

그것은 소년단원들이 모으고 있는 파철이 어떤 려행을 하는가에 대하여 사진으로 보여 주는 것이 어떨가? 하고.

나는 그 생각을 실천하였다. 결국 나는 그 파철과 함께 려행한 셈이다.

사진들을 보라!

소년단원들이 모은 파철은 수매소로 간다. 수매소에는 벌써 파철이 산처럼 쌓이고 있었다.

수매소에서는 이 파철을 제강소로 실어 보내고 있었다. 파철은 기차를 타고 제강소로 간다.

제강소로 실려 간 파철은 전기로 안에 들어 가게 되였다.

《기사장 아저씨! 이 제강소에서 하루에 파철을 얼마나 씁니까? 또 파철이 없어서는 안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묻게 되였다.

전기로에는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뽑아 낸 선철과 그리고 립철(굵은 모래알 처럼 만든 쇠) 회수강 등이 섞여져 들어 간다. 그런데 여기에 꼭 파철이 들어 가야만 한다. 일제 때 왜놈들은 파철을 모으지 못해 외국에서 사다 썼다는 것이다.

나와 함께 려행해 온 파철은 전기로 안에 들어 갔다. 한참 기다려야 했다. 전기로에 들어 간 파철은 선철, 립철, 회수강과 함께 1,600°의 높은 열 속에서 약 8시간 걸려야 쇠'물이 되기 때문이였다.

이렇게 녹아 난 것이 강철이 된다. 아직도 공장으로 가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전기로에서 나와서 가열로로, 다음 압연기를 거쳐 절단기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공장으로 가는 것이였다.

이제는 공장으로 갈 차례가 되였다. 또 기차를 타야 한다.

아직도 기차, 화물 자동차, 배들을 더 타야한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기계 만드는 기계, 고기'배의 원동기, 농기계를 비롯한 각종 기계들과 우리들의 살림에 늘 쓰는 물건들, 공부할 때나 실험 실습할 때 쓰는 물건들이 또 다시 기차를 타고 화물 자동차를 타고 배를 타고 상점으로 가고 우리 손으로 들어 와야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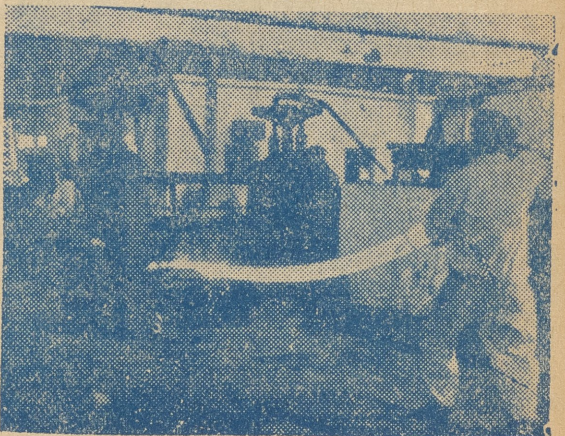
파철과 함께 나를 려행하도록 충동을 준 그 소년단원들에게 나는 파철이 강철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 간다는 것도 말해 주고 싶었다.

여기에 실린 사진들은 그것을 보여 준다.

(리 종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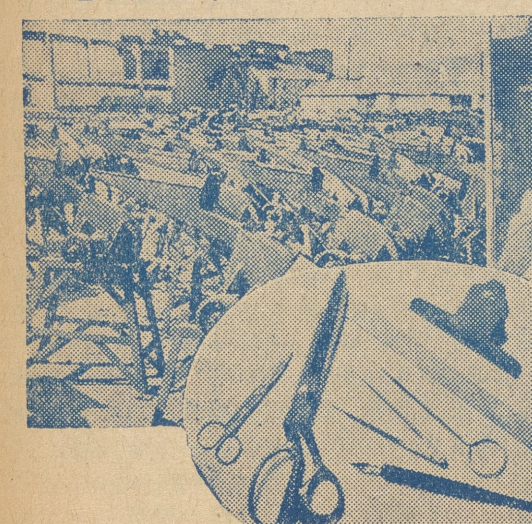
(4) 전기로에서 쇠들은 불꽃을 튀우며 끓어번진다. 이 전기로에서 한번 쇠를 녹이는데 한톤의 파철이 들어 간다.

(5) 《출강!》 쇠'물을 쏟아 내라는 신호와 함께 남비가 기중기로 옮아 온다. 전기로에서 끓는 쇠물이 남비에 옮겨 진다. 이것은 또 케스에 들어가 강괴로 되는 것이다.

(6) 가열로에서 강괴를 달쿠어 낸다. 이것이 압연기에 옮아 간다.

(7) 가열로에서 나온 강괴는 압연기에서 이렇게 길죽하게 늘어 난다. 일정한 규격이 되면 이것을 끊어서 강재로 만든다.

(8) 가열로에서 나온 강괴는 압연기에 들어가 이렇게 납작하게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을 판재라고 한다.

(9) 공장에 실어 가기를 기다리는 강재들이다. 공장에서는 이렇게 깎고 다듬어 기계도 만들고 학용품도 만든다.

(10) 여기에 동무들이 모아 보낸 파철도 들어 있다

(11) 그것은 다시 우리의 손에 들어 온다. 동무들이 쓰는 칼, 철필촉, 가위, 철로 만든 실험 기구, 콤파스 이것은 모두 파철이 든 강철로 만든 것들이다.

일본에 있는 조선인 소중 학교 아동들의 작품집에서

우리 편집부는 얼마 전에 또 다시 일본 서협 조선인 소중학교 학생 작품집 《종달새》 4호와 동경 제10 초급 학교 6학년생들의 작품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날 《종달새》3호가 맺은 조국의 소년단원들(평양 5중, 11중, 제1녀고중)과의 친선의 편지들과 우수한 작문, 일기, 시 등이 실려져 있였습니다.

이 작품들과 편지들에는 한결 같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간절한 마음들과 꿈속에서까지 사랑하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영웅 나라 어린이답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자라며 열심히 공부할 굳은 결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들의 작품 세편을 실려 드립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인 소중 학교 학생들의 작품집◇

대판 사리사 학교에 보내는 격려문

《대판》사리사 학교 동무들에게

사랑하는 사리사 학교 동무들!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선생님에게서 동무들의 학교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무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우리들도 조선 동포의 학생들로서 참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동무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동무들의 원통하고 섭섭한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또한 공부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지장을 주리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동무들의 딱한 사정을 우리 학교의 동무들은 모두 걱정하고 있으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구원 운동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용돈을 아껴서 한 사람이 10원 이상씩 모은 돈이 2,868원이 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 일을 매우 칭찬하시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들이 이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슨 일이든 하면 안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나마 우리 학교 동무들의 정성만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무들!

동무들에게는 참말 여러 가지 곤난한 사정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족한 학교 살림 속에서라도 학습 시간만은 꼭 내여서 배우는데 더욱 힘써 주세요. 그리고 꿈에도 잊지 못할 영웅의 나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씩씩하고 명랑한 어린이라는 자랑을 어느 때나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동무들! 모두다 우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굳게 뭉쳐 싸워 나갑시다.

끝으로 그리운 동무들의 건강을 빌며 불탄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기다리며 이만 쓰겠습니다.

1956년 6월 4일

동경 제10 초급 학교

자치 위원회 일동 올림

현련합 운동회에 참가해서

서협 조선인 소 중 학교 중 3학년 조 정 자

11월 6일 우리《서협》지역에서도 현 련합 운동회에 참가하게 된 우리들은 빼스를 한대 빌려《신호》로 떠나기로 하였다.

나는 그날 아침 새로 고쳐진《서협》정거장 앞 마당을 처음으로 보았다. 단체 레스링구 회장이 되였다고 바삐 고쳤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는듯 생각되였기 때문이다.

빼스에 올라 탄 나는 창문에서 구름이 낀 하늘을 쳐다 보며 어제처럼 오늘도 닭은 하늘로 유쾌히 대회를 끝마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리고 오늘도 전에 려행하던 때처럼 차멀미를 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으면 하고 빌었다.

차는 점점 《신호》에 가까와졌다. 《명석》쯤에 갔을 때 예상한 것처럼 나의 가슴과 머리는 점점 아파져 갔다. 나의 옆에 계시는 선생님에게 미안하게 생각되여 나는 눈을 감았다.

차는 《신호》 시내에 닿았다. 가슴에서 무엇이 물컥 올라 오는 것 같애 땀이 바짝 나왔다. 나중에는 빼스가 너무 늘인 것만 같았다. 운동회장인 왕자 공원에 닿았을 때는 드디여 입에서 토해 올리고야 말았다.

신문에서도 보고 빨리 가 보고 싶던 그란드가 바로 눈 앞에 있는데도 나의 마음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다만 가슴이 아픈 생각과 선수로 나온 것이 걱정이 되였다. 《서협》지구의 자리에 앉자 곧 나는 운동 준비를 하고 운동장에 나갔다. 나보다 훨씬 키가 크고 몸도 큰 동무들이 벌써 나와 기다리고 있였다.

나는 눈을 둥그렇게 하고 앞뒤의 동무들을 살펴 보았다.

차례는 왔다. 나는 힘껏 뛰였으나 불행하게도 힘이 모자라 등수에 들 수 없었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마 동안 자기 자리에 들어 가지 못했다.

오후에는 400m 리레가 있었다. 정심도 안 먹었는데 도중에서 쓰러지지 않을가? 하고 생각했는데 요행이 아무 탈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등수에 들지 못했다.

나는 막 뛰여 내 자리에 가 앉았다.

새로 된 공원은 참으로 훌륭하였다.

이 그란드가 조선 사람의 것이였으면 얼마나 좋을가, 우리의 국기가 바람에 펄펄 휘날리듯 우리 마음도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울가! 또 우리의 체육은 얼마나 늘며 우리의 신체도 얼마나 튼튼해질가… 이런 공상도 해 보았다.

이날 운동회에서 제일 인상 깊이 남은 것은《신호》중, 고 학교 녀동무들의 조선 춤이였다. 지금도 눈 앞에 훤히 떠오른다.

그런 군무를 내가 보기에는 생전 처음

동시 우리 학교

서협 조선인 소중학교 제4학년 오 도 자

우리 학교는 참말 좋아요.
둘레에는 꽃밭도 만들고
네분뿐인 선생님이지만
우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조선의 훌륭한 일'군이 되려고.

우리 학교는 참말 좋아요.
교사는 작으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요
모두모두 가슴펴고
조국에 돌아 갈려고.

우리 학교는 참말 좋아요.
창문엔 유리가 모두다 들어있지 않지만
선생님을 받들고 배워나가죠.
집에선 집'일 잘 돕는
모범 학생되려고.

이다. 또 회장에 들어 서자 눈에 띄우게 머리 웃벽에 《제11회 병고현 조선인 련합 대운동회》라는 큰 글'자가 그 넓고도 넓은 새로 된 그란드에 환히 보이도록 붙여진 것을 볼 때, 아니 그보다 가을 바람에 펄펄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바라 볼 때 우리들의 행복의 나날이 바로 눈 앞에 약속된 것 같았다. 나는 이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박차고 더욱 굳게 뭉쳐 나가자!》하고 뛰노는 마음에 새로이 다졌다.

☆

내나라에 돌아온 기쁨

꿈 속에서도 우리 집 여섯 식구는 《언제나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가?》.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에 조국에 오게 되였을 때 나와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은 김 일성 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에서는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2층 아빠트에 집을 주었고 새로운 의복과 많은 돈도 주었지요.

날마다 직장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우리 세 형제가 한자리에 모이는 저녁이면 누구보다도 어머니는 몹시 만족한 웃음을 지으십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살 때의 어머니 얼굴과는 퍽 다른 웃음이지요. 지금 우리 살림에는 아무 걱정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아주 큰 3층 벽돌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우리 학교보다도 더 크고 좋은 학교가 얼마든지 있어 어린이들은 누구나 돈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손목을 잡고 학교에 나올 때면 돈 없어 학교에 못 다니는 일본에 있는 많은 동무들과 남반부의 불행한 어린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공부하게 되였으면…》하고 말입니다.

지금 나의 동무들은 참 좋은 애들입니다. 소년단원인 그들은 퍽 활발하며 친절합니다. 나도 빨리 소년단원이 되려고 좋은 동무들의 뒤를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절에 나는 인민 군대 아저씨들 앞에서 《꽃대문》이라는 춤을 다췄습니다. 요즘은 5•1절에 로동자 아저씨들에게 보여 드릴 무용 연습을 또 한답니다. 집에 돌아 가면 아버지는 우리들의 학습장들을 펼쳐 보시고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부를 잘 해야 한다. 우리들이 조국에 돌아 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되였으니 정말 조국이 얼마나 좋으냐! 조국에 보답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가슴에도 꼭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서 조국에 보답하겠다는 새결심이 솟습니다.

평양 제18중 학교 제2학년 7반
송 정순

◇새로 지은 조선 옷을 입으며◇

◇그에게는 벌써 동무들이 많아졌다◇

그림 이야기의 글 신 고송

이 이야기는 쏘련의 저명한 아동극 작가인 웨•류비모와의 널리 알려진 아동극 《스네조크》(적은 눈이란 뜻)의 내용을 대충 추린 것이다. 이 연극은 이미 1950년도에 우리 나라의 극장에서 상연하여 우리 소년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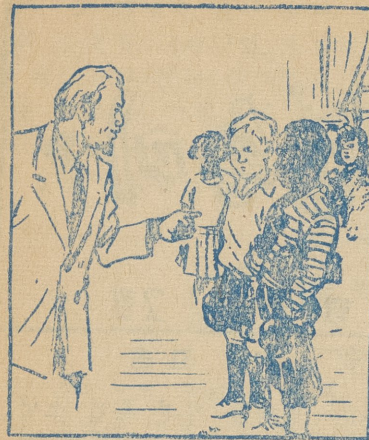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 난다. 교장인 톰손은 제 2차 세계 대전에 참가하였고 독일 전선에서 쏘련 군대를 만나 쏘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학교에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공부를 시키고 있었다.

《눈'송이》라는 별명을 가진 흑인 소년 디크도 이 학교에서 장래 외과 의사가 될 것을 꿈꾸며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의 평화는 월가(큰 자본가들이 사는 미국 뉴욕시의 한 거리)의 자본가인 비들의 딸 안젤라가 이 학교에 옮겨 오게 됨으로부터 깨뜨려지고 만다. 백만 장자 비들은 원자 원료가 생산되는 이 도시의 광산과 공장을 독점했을 뿐 아니라 모든 기관, 관리들, 학교까지 돈으로 매수하여 이 도시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였다. 그는 오만한 제국주의자며 잔인한 인종 차별자였다.

1. 학급의 대표적 운동 선수인 디크는 그를 시기하는 촬리와 싸운 탓으로 서로 화해할 때까지 럭사 교실에 남아 있게 되였다. 교장 톰손 선생은 다시 와서 그들이 화해하기를 권했으나 두 소년은 듣지 아니하였다.

2. 점심도 못먹은 그들은 배가 고팠다. 유리창을 통해서 먹을 것이 든 꾸레미가 들이나 들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디크에게》라고 쓴 것이였다. 처음에는 디크가 같이 먹자고 권해도 대답이 없던 촬리는 참을 수 없이 큰 소리친 것도 잊어버리고 디크의 몫에서 얻어 먹는다.

3. 톰손 교장이 잠군 창문을 촬리가 열었다. 쫀을 선두로 한 데비, 베티, 메리, 제인 등 동급생들이 창을 넘어 들어 온다. 결국 권투 시합을 해서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사과하기로 결정한다. 처음에는 디크가 쓰러졌으나 곧 일어났고 촬리는 아주 꺼꾸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디크가 이긴 것이다. 이때 톰손 교장이 들어 와서 이 광경을 보고 있으나 아이들은 모른다.

4. 쬰《촬리, 네가 졌으니 먼저 사과해라》. 촬리《할수 없이 이번엔 사과하지만 요댐엔 지지 않아…》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흑인한테 빌기는 싫었다.

톰손《좋습니다. 이렇게 화해는 됐소! 그런데 내가 잠군 창을 누가 열었소?》.

촬리는 종시 입을 다물고 대답이 없다.

디크는 한참만에《그것은 접니다》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자 아이들은 그의 태도에 감격함과 동시에 촬리를 야비하다고 생각했다.

톰손《그럼 디크는 래일도 두시간 동안 이 방에서 벌을 서시요》.

5. (백만 장자의 사랑' 방에서)

안젤라《아버지 난 기분 나빠 학교 못 다니겠어요. 우리 남쪽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검둥이와 막 섞여서 공부해요!》.

비들《안젤라야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 멀지 않아 다 좋게 될 것이다》.

안젤라《오늘은 우리 반 동무들이 와요》.

비들《오냐 좋은 아이들 하고 친해야지》.

6. 쩨인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빨래한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안젤라의 집에 왔다.

안젤라《어머니가 빨래'품을 들어 사는 줄은 몰랐구나! 자 여기서 놀자꾸나. 이제 반 동무들이 많이 와!》.

쩨인《애 나는 옷이 이렇게 더러워》.

안젤라《내 옷을 한벌 주지, 내겐 많아》.

쩨인《그건 싫어…》.

7. (비들이 나타났다)

비들《내 딸의 반 동무들, 안녕히 오시요! 당신들의 학교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나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학교에 기부하겠습니다》.

촬리《야 멋있다!》.

메리《정말 멋있다!》.

비들《자 그럼 재미 있게들 노시오》.

8. 안젤라《자 이리 앉아. 혼자 왔니?》.

쬰《안야 반동무 둘이 같이 왔어》.

안젤라《누군데 안들어 와?》.

쬰《디크와 베티야 정문에서 안 들여 놔!》.

안젤라《흥 나는 그런 검둥이를 청한 일은 없어!》.

쬰《뭐라고?! 걔들도 한반이 아냐!》.

안젤라《그런 손님은 우리 집엔 못 와!》.

쬰《그래?! 애들아 이집엔 올데가 못 돼! 돌아 가자!》.

9. (톰손 교장이 디크, 쬰과 이야기한다)

쬰《교장 선생님 안젤라가 디크를 학교에서 내쫓으려고 해요》.

톰손《걱정말아, 그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디크《우리 할아버진 문지기였고 아버진 짐'군, 어머닌 식모, 아저씬 승강기 안내원, 이렇게 우리 민족은 학대를 받아 왔어요! 선생님 나는 공부를 해서 외과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톰손《되고 말고! 될 수 있어, 디크, 내가 도와 줄테니 외과의가 되라구…》.

10. (비들이 아첨쟁이 교원 테이커를 찾아 왔다)

테이커《저는 담임 교원입니다. 참 훌륭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비들《나는 학교 도서관에 2천권의 책을 기증하겠소. 그중 2백권의 성경도 있소. 이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쳐 주나요?》.

테이커《아닙니다. 톰손 교장이 그것을 허락치 않습니다》.

비들《그것은 좋지 않소. 유물론자를 만든다는 것은 공산당의 동정자를 만드는 것이요》.

11.(비들이 톰손 교장과 만났다)

비들《디크를 위시한 검둥이 아이들을 뒤'자리에 앉히시요》.

톰손《뭐 때문에 자리를 바꾸겠소? 그들이 흑인이기 때문에요? 안 돼요!》.

비들《당신의 그런 사상은 반미적인(미국을 반대하는) 행동이요. 내 명령을 들으시요》.

톰손《안 돼요!》.

비들《당신은 위험 인물이요!》.

12. (흥분한 톰손 교장을 녀교원 쭌이 위로한다)

쭌《무슨 일이 생겼나요?》.

톰손《비들이란 자는 당신과 내가 만들어 놓은 백인과 흑인과의 평등, 친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쭌《그럴 수야 없지요》.

톰손《그럴 수야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돈으로 그것을 할 수 있지요!》.

쭌《싸워야지요!》.

톰손《암 싸워야지요!!》.

13. 방과후 교실에서 쬰《톰손 선생이 쏘련 이야기를 해준댔어… 모두 안갈래?》.

디크, 베티, 데비, 쩨인이 손을 들었다. 안젤라는 데비가 만약 거기에 가면 그의 아버지를 공장에서 내 쫓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쬰《맘대로 내 쫓지는 못할걸…》.

안젤라《흥 동맹 파업이라도 하겠단 말이지…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걸》.

14. 쬰이 설복하는 통에 촬리는 쏘련 이야기를 듣겠다 안듣겠다 말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메리는 립장이 딱해 울기 시작하였다.

베티《애 안젤라야 봤지 왼통 반 동무들이 너를 따돌리지 않니!》.

안젤라《옳지 넌 날 건드렸지 애그 더러워!》.

베티《난 널 건드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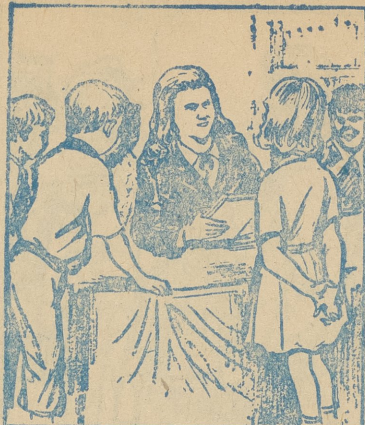
안젤라《오냐 검둥이 계집애가 나를 건드렸지… 그럼 나도…》. 하며 손을 들어 베티를 때리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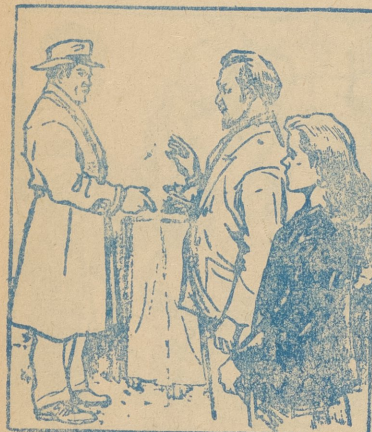
15. 안젤라《네가 날 때리겠니?》

디크《너 같은 건 내가 때릴 것도 없어》.

안젤라《그럼 왜 내 손을 잡았니? 애그 더러워! 향수 없어 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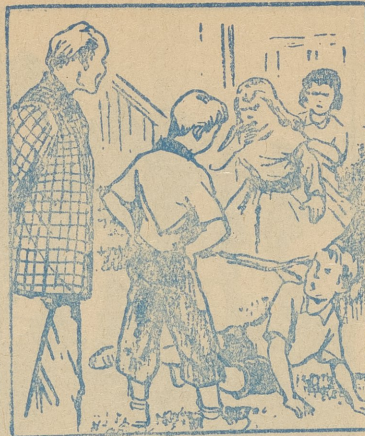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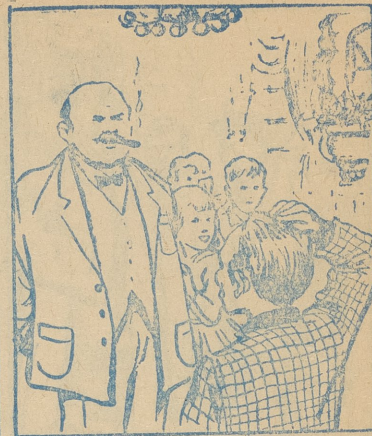
디크《넌 돼지 같은 계집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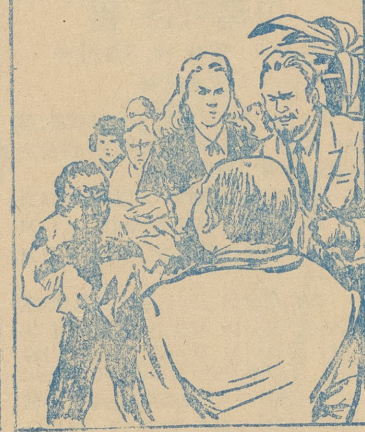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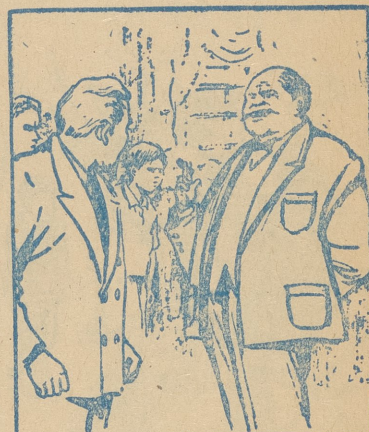
16. (이때 테이커가 방에 나타난다)
테이커 《왜 그러느냐?》.
안젤라 《선생님 디크가 나를 때렸어요》.
쫀 《이게 정말 돼지 같은 계집애야!》.
테이커 《떠들지말아! 디크, 이리와. 손을 내밀어》 하며 자로 그의 손을 때린다.
디크 《나는 때리지 않았어요!》.
안젤라 《아이구 아파요. 아이구…》. 하고 엄살을 부린다.
테이커 《안젤라 병원으로 가자! 디크야 너는 너의 죄 값을 받을 것이다》.

17. (쫀 선생이 《청년 근위대》의 이야기를 한다)
쫀 《크라쓰노돈의 청년들은 훌륭하지!》.
쫀 《로씨야 사람들은 참 훌륭해!》.
디크 《쏘련 아이들과 친해 봤으면!》.
쫀 《내게 주소가 있으니 편지 보내고 싶은 사람은 보내시요》.
아이들 《그러자!!》.

18. (톰손 교장이 들어선다)
톰손 《학생들 긴한 일이 생겼으니 다들 돌아 가시요. 그리고 디크는 옆방에 좀 남아 있고 베티는 가다가 디크네 집에 가서 디크가 좀 늦어진다고 그래!》.
아이들은 돌아 갔다.
톰손 《폭행 죄로 디크를 재판소에서 부릅니다》.
쫀 《에?! 디크를…애그머니나…》
톰손 《그러나 나는 그를 재판소에는 보내지 않을 것이요!》.

19. (비들이 보낸 형사가 나타난다)
형사 《디크란 학생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톰손 《그 아이를 체포할 수 없소》.
형사 《저는 명령을 집행할 뿐입니다》.
톰손 《개는 지금 앓고 있소》.
형사 《저는 명령을 집행할 뿐입니다》.
톰손 《내가 가서 말해 주지!》.
형사《그건 좋을 대로 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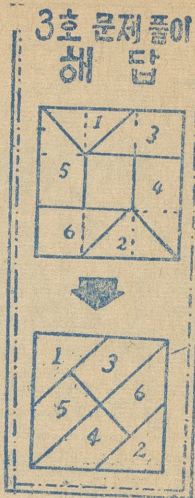
20. 테이커 《여보세요 비들 씬가요. 나 테이커입니다. 디크에 대한 체포 명령을 톰손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문으로 형사를 안내했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요…만사는 다 바로 될 것입니다. 예…예…예…》.

21. 테이커《저놈이요. 저놈이 디크요》 하고 디크를 가리켜 준다.
형사 《이놈 가자!》.
디크 《아! 톰손 선생! 톰손 선생!!》.
형사 《잠자코 있어》.
디크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형사 《가 보면 무슨 죈지 알아》.

22. (교실에서 옆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보며 걱정한다)
쩨인 《저방에서는 뭘하고 있는지》.
쫀 《무슨 회의가 봐, 비들 씨와 같은 유지들이 모였으니…》.
데비 《테이커 선생도 거기 있어. 디크를 재판하자는 것 아니야?》.
쩨인 《교장 선생은 어데 갔을가!?》.
쫀 《디크를 풀어 내려고 갔어》.
베디 《아이구 디크는 어떻게 되는거야!》.

23. 촬리 《학교서 쫓겨나면 디크는 어데로 가지?》.
안젤라 《갈 데야 뻔하지 시'껌은 일을 하지》.
촬리 《검은 약으로 검은 구두나 닦지》.
쫀 《촬리 너 밖에 좀 나가자》, 떠민다.
촬리 (쓰러지며) 《오냐 막 때리는 구나. 보자!》.
안젤리《저 자식도 잡아가야 해》.
테이커 (안에서 나오며)《누가 여기서 떠들라고 했어. 썩 물러 가지 못해!》.

24. 안젤라 《톰손이 디크를 찾으러 갔대요》.
비들 《흥 그건 안될 걸… 여보 테이커 당신은 좋은 증거를 주었소 톰손의 반미 행동의 충분한 증거요…》.
테이커 《저로서 다행한 일입니다》.
비들 《당신은 젊기는 하나 나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할 작정이요》.

25. (디크가 잡혀간 다음 그의 동무들은 걱정한다)
베티 《선생님 디크가 어떻게 됐어요?》.
톰손 《디크는 지금 앓고 있다…》
쫀 《디크를 봤나요?》.
톰손 《못 봤어 갑자기 발작을 해서 병원으로 보냈대. 여섯시에 만나게 돼》.
베티 《디크는 많이 맞았겠지요?》
톰손 《알 수 없어…》

26. (디크가 도망쳐 나왔다)
디크 《그들은 나를 때렸어요. 하지 않은 일을 나더러 했다고 말하라는 거야요. 나는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비들 씨 왜 나를 괴롭히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요? 왜 나를 학교에서 내쫓으려는 거요?》.
톰손 《디크의 물음에 대답을 하시요?》.
비들 《여기는 회의장이 아니야!》

27. 비들 《톰손 씨 당신의 교장 사업은 끝났소!.》
톰손 《그렇게 쉽게는 안될 걸요》.
비들 《테이커 씨가 새로 교장이 됐소》.
테이커 《톰손 당신의 사업은 끝이 났소. 당신의 교육 방침은 옳지 않았소》.
비들 《옳소! 일은 바로 끝났단 말이요》.
톰손 《일은 이제 시작이요!》.
요란하게 공장의 싸이렌이 울려 온다.

28. 형사《큰일 났습니다. 비들 씨!》.
테이커《디크는 저기 있소, 잡으시요》.
형사《공장에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비들《뭐? 빨갱이들이!》.
비들, 테이커, 안젤라, 촬리, …리들이 여지 없이 당황한다.
톰손《비들 씨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요》.

29. 톰손《우리들은 우리들의 순진한 아동들을 위하여 아메리카의 명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친선과 자유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월가의 자본가들이여, 너희들은 우리를 물리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들은 최후까지 싸움을 버리지 않겠기에…

독자 여러분들에게

잡지《소년단》은 이번호부터 15,000부가 불어서 80,000부로 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편집부

아름다운 일

자강도 성간 제 4중학교
6분단에서

어느날 덕찬동무는 동무들과 함께 새로 짓는 학교에 기와 나르는 일을 돕게 되였다.

덕찬 동무를 앞서 가던 몇동무들이 힘들다고 하면서 지고 가던 기와'장을 몇장씩 길'가에 던지고 갔다.

국가 재산을 자기 물건처럼 애호하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 덕찬이는 자기가 지고 가던 것도 무거웠지만 먼저간 동무들이 버리고 간 기와'장까지 모두 우에 올려 놓고 끝까지 지고 간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편집 위원 김 주 현(주필) 김 칠 성 리 원 우 리 동 무
송 정 우 신 진 균 최 윤 호

1957년 5월 10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7년 5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7년 제 5 호 (총92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459 값 25원 80,000부 발행

우리들이 채취할 수 있는 약초들

① 삼지구엽초 (매자나무'과)

산에 가면 가지가 셋이고 그 가지마다에 잎이 셋씩 달려서 아홉개의 잎을 가진 풀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삼지구엽초이다.

이 약초는 보통 20~25cm 정도 자라는데 이른 봄 가지 끝에 백색 또는 황백색의 꽃을 피운다. 그의 잎과 웃초리는 배앓이 약으로 리용된다.

채취 방법—5~6월 경에 잎과 웃초리를 따서 말리우면 된다.

② 오 미 자 (목련'과)

오미자는 깊은 산 기슭에 자라는데 6~7월 경에 가면 새로 자라난 가지의 밑 부분에서 홍백색 꽃이 많이 핀다. 8~9월 경에 가서는 열매가 빨갛게 익는다.

이 열매는 기침과 담(가래)을 새기는 한약으로 리용된다.

채취 방법—열매가 익었을 때 따서 정히 말리우면 된다.

③ 승 마 (미나리아재비'과)

승마는 산 중턱 골짜기들에서 자라며 높이는 1~1.2m이며 7 8월경 줄기 끝에 긴 화경(꽃이 필 줄기)이 벋고 흰 꽃이 핀다.

승마의 뿌리는 독을 풀고 열을 내리우는 한약으로 귀중히 리용된다.

채취 방법—여름과 가을에 걸쳐 뿌리를 캐고 그것을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말리우면 된다.

④ 참시호 (미나리아재비'과)

참시호는 산이나 들판에서 자라며 줄기의 높이는 50~90cm 정도이고 9월 경에 가지의 끝에 황색 꽃을 피운다.

뿌리는 감기약을 만드는 한약에 주로 리용된다.

채취 방법—승마의 채취 방법과 같다.

⑤ 세 신 (쥐방울'과)

세신은 곳에 따라 족도리 풀이라고도 불리운다. 산속 습한 땅에서 자라며 잎은 심장형이고 뿌리는 다소 매운 맛이 있다.

이른 봄에 잎 밑부분에 홍자색 꽃을 피운다. 그의 뿌리는 담을 쓰러뜨리고 열을 내리우는 한약에 많이 리용된다.

채취 방법—승마의 채취 방법과 같다.

⑥ 작 약 (미나리아재비'과)

작약은 보통 함박꽃이라고도 한다. 주로 산에서 자란다. 관상용으로 재배하기도 한다. 초여름에 꽃이 피는데 빨간 꽃이 피는 것을 적작, 흰 꽃이 피는 것을 백작이라 한다.

그 뿌리는 사람의 비장, 위장을 튼튼히 하는 한약으로 귀중히 리용된다.

채취 방법—시기에 상관 없이 뿌리를 캐여 흙을 씻은 다음 적당한 곳에서 말리우면 된다.